

# 고도(古都) 경주의 역사문화환경지구 내 상업가로경관 디자인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mmercial Streetscape Design Guideline of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al Districts in Ancient Capital Gyeongju

현택수\*

Hyun, Taek-Soo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townscape design guideline that harmonized with a historic landscape via condition investigation and landscape analysis of the cultural /commercial environment district where an improvement is a necessity.

The followings are the conclusions: 1.To enhance the identity of Gyeongju, should pursue diversity in unity by making the image of architectural landscape a similar peculiarity. 2.The central commercial district where the tradition is valued and contemporary figures meet the tradition needs a landscape formation by CONTEXT. 3.Since a characteristic of the target area is a regional commercial center, to reduce its congestion, reforming the area to simple environment is required. 4.Induce buildings located on the streets with cultural properties to have Korean traditional tiled roof in order to fit in with their surroundings. 5.Make it a rule to partition a wall into tripartition, the wall surface exposed should be the same finishing materials. 6.Consider the visual aspect of pedestrians and a building's width, the recommendable height of the façade should be 3~3.6m. 7.For the design archetype of cornice, four traditional types based on Korean traditional eaves are suggested. 8.The design of signboards should break existing square-shapes, and seek a design to take advantage of icons that historicity and traditionalist of the city are expressed.

키워드 : 역사문화환경지구, 상업가로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Keywords :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al Districts, Commercial Streetscape, Design Guideline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도(古都)’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였던 도시로 현재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4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sup>1)</sup> 이들 도시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역사 흔적이 도시 전 지역에 걸쳐 남아 있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인 동시에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주는 우리민족의 역사적 대장정을 말해주는 거대한 야외박물관이며, 그러한 연유로 유네스코는 1995년 12월에 불국사·석굴암을 세계문화유산(World Heritage)으로 지정하였고, 2000년 12월에는 경주역사유적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그러나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무수한 문화재와 역사경관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각종 규제는 오히려 도시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여 타

도시에 비하여 도시 발전 속도가 매우 더딘 실정이다. 따라서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2012년 3월 5일자로 경주시 서부동, 북부동, 동부동, 황오동, 교동, 구황동, 노동동, 노서동, 황남동, 인왕동, 사정동 등 일원 2,771,205㎡(5,705필지)를 대상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고도 지구(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특별보존지구(2,167,041㎡)는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原形)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이며, 보존육성지구(604,164㎡)는 특별보존지구의 주변 지역 중 현상(現狀)의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sup>2)</sup>

특히, 보존육성지구 중에서 팔우정 삼거리를 기점으로 원화로, 태종로, 중앙로, 그리고 원효로로 둘러싸인 도심 문화·상업환경 개선지구는 지구 북측을 제외한 동, 서, 남측

\* 정희원, 경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본 연구는 경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보존법”이라 함) 제2조

2) 고도보존법 제10조

3면이 특별보존지구에 둘러싸여 있어 현대적인 상업이미지와 인접 고분군들에 의한 역사경관과의 대립적이고 부조화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경주 도심 문화·상업환경 개선지구 내의 가로변 건축물을 인접 특별보존지구의 역사경관과 형태적으로 조화될 수 있고, 또한 편리한 상업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심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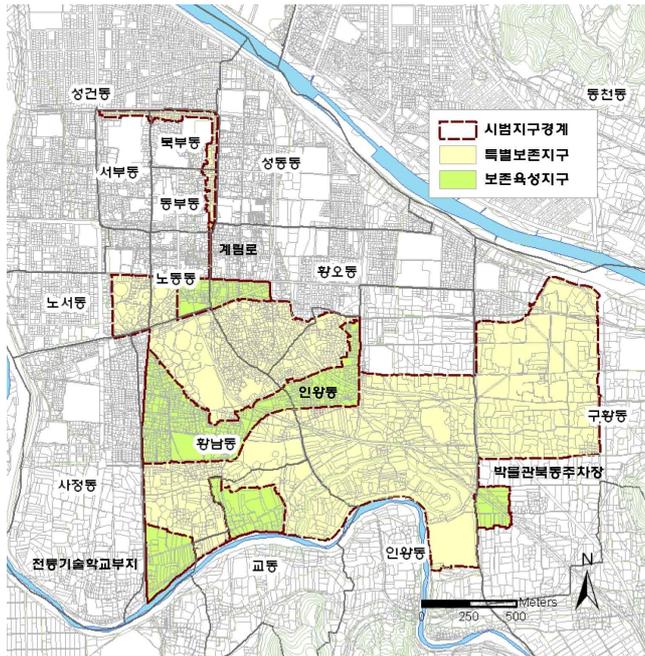


Figure 1. Ancient Historic District(Gyeongju)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경주시 동부동, 황오동, 노동동 일원으로 팔우정 삼거리를 기점으로 원화로, 태종로, 중앙로, 그리고 원효로로 둘러싸인 도심 문화·상업환경 개선지구와 ‘패션의 거리’로 불리는 계림로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우선 고도(古都)의 개념과 가로경관 등에 대해 문헌을 통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으며, 그다음 경관법·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건축법·건축 및 도시계획조례 등 고도 관련법규 및 계획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심 문화·상업환경 개선구역 내 가로변 건물들에 대한 현황조사 및 경관분석을 통하여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역사경관과 어울리는 형태 및 외관으로 바꾸기 위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2. 고도 경주의 역사문화환경지구 내 상업가로경관 현황

### 2.1 고도의 의미

‘고도(古都)’는 일반적인 역사문화도시와는 달리 한나라의 정치·역사의 중심지로서 왕궁, 주작대로, 성곽, 사찰, 왕릉 등 도읍지만이 갖는 유무형의 흔적이 깊이 남아 있으며, 국가를 다스리던 다양한 역사문화유적과 역사적 사

실이 공간적으로 농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sup>3)</sup>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지위를 가진 경주, 부여, 공주, 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경주, 공주, 부여, 익산 4개 지역이 고도로 지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서울, 김해, 강화, 개성 등 과거 국가 통치의 중심지 기능을 했던 도시들이 고도로 추가 지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도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신문화의 상징이며, 한민족의 정신적 고향으로서 우리민족의 문화적·민족적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 2.2. 경주 고도경관의 일반적 특성

경주는 문화재관련 규제로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도시기능이 쇠퇴하는 등 도시 활력이 저하되고 있고, 문화재 지역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의 건립으로 역사문화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최근 월성, 황룡사지, 대릉원, 쪽샘지구, 경주읍성 등 특별보존지구는 현재 건축물을 철거하여 사적지를 정비중이다.

보존육성지구 중 경주의 상권 1번지라 불리던 상업 환경 개선지구는 경주시청이 이전하기 전 병원, 극장가 및 다양한 의류점 등이 입지하고 있어 ‘경주의 명동’이라 불릴 만큼 상권이 발달 된 곳이다. 그러나 경주시와 상업 환경개선지구의 소상공인들의 노력으로 외면적으로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아직 내면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점이 설문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지구는 중·저층 건물이 주를 이룬 가운데 점진적으로 5층 이하 업무용 건물들이 산발적으로 분포하여 전체적으로 무질서하고 침체되고 노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변의 유적지와 별개로 개별적으로 건축되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건축물들과 부분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옥상시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미관이 저해 되고 있는 실정이다.



Figure 2. Street View of Commercial District

거리질서의 미비로 정연하지 못한 경관을 이루는 가운데 전신주와 통신선의 혼선으로 난잡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복합적으로 구성된 간판으로 인하여 보행자들의 시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거리별로 특화된 경관을 이루지 못하며, 거리내의 동질적 일관성을 갖지 않고 있다. 동일 건물의 외관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형태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이며, 단일 건물 내의 다양

3) 채미옥 외, 경주고도보존계획, 경주시, p15

한 단위 점포들로 인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불확실한 실정이다.

### 2.3 상업지역 내 가로변 건축물 현황분석

#### (1) 위치 현황

도심 문화·상업환경 개선구역은 노동동·황오동 일원으로 서쪽으로는 중앙로, 남쪽으로는 태종로, 동쪽으로는 원화로, 그리고 북쪽으로는 원효로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과 계림로(패션거리)를 포함하는 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경주 구도심의 핵심지역이나 일부 가로변 상권을 제외하고는 최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Figure 3. Improve of District of Down Town

#### (2) 건물용도

가장 중심가로인 계림로와 원효로 변은 의류 판매업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음식점, 커피점, 휴대폰 판매업 순으로 나타난다. 기타로는 여행사, 오락실, 금/은 보석가게, 중고가게, 목욕탕, 헬스장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블록 내부에 일부 주거가 입지하고 있다.

Table 1. Present status of Use

구분	건물수(개)	구성비(%)
의류	44	24.0
음식점	35	19.1
커피점	9	4.9
숙박	9	4.9
판매	6	3.2
휴대폰	11	6.0
화장품	8	4.4
주택	30	16.4
기타	31	16.9
합계	183	100.0

#### (3) 건물연수

건물연수를 보면, 1971~1990년대에 건립된 건물들이 38.8%로 가장 많은데, 이것은 1970년대부터 시행된 경주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심 상업환경 개선지구 내에서

도 그 시기에 많이 건설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다음 1951~1970년대에 건립된 건물들이 23.5%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건물들은 노후화가 심각하여 향후 개보수의 필요성이 높은 건물이다. 1990년대 및 2000년대에 건립된 건물은 각각 11.5%와 5.5%로 나타났다.

Table 2. Construction Year of Buildings

구분	건물수(개)	구성비
1950년대 이전	14	7.6
1951~1970년대	43	23.5
1971~1990년대	71	38.8
1991~2000년대	21	11.5
2001~2012년대	10	5.5
건년연도미상	24	13.1
합계	183	100.0

#### (4) 건물마감

건물마감 현황을 보면, 벽돌 및 유리로 마감된 건물이 19.1%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콘크리트와 유리(18.1%), 전면유리(15.8%), 목조 및 유리(14.2%)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대리석, 석재, 드라이비트 마감이 있다. 특히 일부 전통목구조 한옥은 쇼윈도우 설치 등 전면 개보수를 통하여 현대식 상업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다.

Table 3. Finishing Materials

구분	건물수(개)	구성비(%)
벽돌, 유리	35	19.1
콘크리트	33	18.1
유리	29	15.8
목조, 유리	26	14.2
유리, 타일	26	14.2
석재, 유리	13	7.1
드라이비트, 유리	11	6.0
대리석	10	5.5
합계	183	100.0

#### (5) 건물색채

건물색채는 회색 및 흰색이 가장 많으며, 적색, 갈색, 혼합색(2가지 색 이상)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주를 대표하는 8색 (빨강, 다홍, 노랑, 녹색, 파랑, 자주, 금색, 검정)과는 상이한 색상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Finishing Color

구분	건물수(개)	구성비(%)
회색	30	16.4
백색	29	15.8
적색	13	7.1
갈색	11	6.0
흑색	7	3.8
녹색	3	1.7
청색	3	1.7
혼합	87	47.5
합계	183	100.0

(6)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54.6%로 가장 많은 구조형식이며, 그다음 조적조(블록, 벽돌조)가 26.8%, 철골구조가 가장 낮은 3.3%를 차지하고 있다. 목조건물은 15.3%에 불과하여 과거에 지어진 전통한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대식 양옥으로 교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Building Structure

구 분	건물수(개)	구성비(%)
철근콘크리트구조	100	54.6
일반목구조	28	15.3
벽돌구조	21	11.5
블록구조	28	15.3
철골구조	6	3.3
합계	183	100.0

(7) 건물층수

건물층수 현황을 보면, 1층 건물이 가장 많은 4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3층이 27.3%, 2층이 21.3%, 4층이 7.7%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6. Building Stories

구 분	건물수(개)	구성비(%)
1층	77	42.1
2층	39	21.3
3층	50	27.3
4층	14	7.7
5층	2	1.1
6층	0	0.0
7층	1	0.5
합계	183	100.0

5층 이상인 건물은 3개인데, 5층이 2개, 7층이 1개이며, 가장 높은 7층은 구 신라백화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문화·상업환경 개선구역 내 가로변에는 이상과 같이 다양한 층수의 건물들이 개성 없이 무질서하게 입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8) 건물지붕유형

건물지붕 유형은 대부분 평지붕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경사지붕 및 혼합형, 눈썹지붕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7. Roof Forms

구 분	건물수(개)	구성비(%)
평지붕	143	78.1
경사지붕	16	8.8
눈썹지붕	4	2.2
외쪽지붕	2	1.1
혼합지붕	18	9.8
합계	183	100.0

2.4 주요 가로별 경관 분석

(1) 태종로 및 중앙로 일부

태종로는 서악동 수도산네거리에서 황오동 팔우정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1.7km, 폭 30m의 도로이다. 노서동·사정동·노동동·황남동을 경유하며 주변에 경주고속버스터미널·신라문화원·서라벌문화회관 등이 있으며, 이중 상업환경 개선구역에 속하는 부분은 구 시청사 부지부터 팔우정 삼거리까지이다.

노서리 고분군·노동리 고분군·대릉원이 도로 양쪽에 위치하여 역사유적지로의 접근이 용이한 이점을 취하고 있는 도로이다. 그러나 현대적인 이미지의 태종로변은 전통적인 맥락이 중시 되고 있는 고분군과의 부조화로 인해 가로 경관이 비개성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구역을 마주하는 지역으로서, 전통적인 맥락이 강조되어 흐름을 따라 가이드라인이 도출 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2) 계림로

황남동 침성대매표소 앞 네거리에서 동부동 화랑로 분기점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1km, 폭 8m 도로이다. 부근에 있는 숲 계림(鷄林)에서 이름이 유래하였으며, 황남동·월성동·동부동을 경유하여 도로 중간지점에서 태종로와 교차한다.

주변에 국보 제31호인 침성대(瞻星臺)와 사적 제512호인 대릉원 일원 유적지가 위치하며, 일부 구간은 보행자 전용도로, 일부 구간은 보차혼용도로로 되어 있다.

계림로는 의류점이 40%를 점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및 식당이 2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건축물의 층수는 3층 규모가 가장 많으며, 1층과 2층이 같은 비율로 분포되어 있고 4~5층 규모의 건축물도 입지되어 있다.

지붕은 평지붕40%, 경사지붕 30%, 눈썹지붕 20%, 궁형지붕 10% 순으로 평지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사지붕의 경우 전통한옥의 물매를 유지한 경사지붕이 아니라 경사가 급한 지붕이 대부분이다.

최근 가로경관 정비가 완료되어 가로포장은 양호하나 여전히 가로경관의 저해요소가 많은 구역이며, 특히 과도한 간판에 의해 건축물의 형태 식별이 불가하고 건축물간의 통일성 없는 재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가로경관적 특성이 없다.

따라서 “쾌선의 거리”라 칭하는 이 가로는 특별보존지구와 화랑로를 연결하는 변화와 상응의 맥락(context)이 중시 되는 구역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3) 원효로

원효로는 구황동 분황사지 앞 네거리에서 형산강 옆 성건동 강변로 분기점까지 이어지며, 길이 1.4km, 폭 7m의 보차혼용 도로이다.

신라의 고승 원효(元曉)의 이름에서 도로명이 유래하였으며, 구황동·황오동·노동동·노서동·성건동을 경유하고 도로 주변에 경주고등학교·화랑초등학교·월성초등학교, 그리고 노동·노서리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중심 상업 지구와 특별 보존 지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로변으로 의류점이 40%, 식당 20%가 입점하고 있다. 건축물 층수는 1층 45%, 2층 15%, 3층 25%로 되어 있으며, 점적으로 4~5층 규모의 건축물이 분포 되어 있다.

지붕형태는 경사지붕과 평지붕이 각각 40%의 비율로 동일하게 나타나며 궁형지붕은 2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건축물의 마감 재료로는 유리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 목재, 콘크리트, 타일, 벽돌, 금속, 대리석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도심 상업지역 특유의 현대적인 이미지와 고도의 전통적인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어 경주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지역이며, 전통적인 맥락과 현대적인 이미지를 가진 맥락의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완충적인 흐름과 관계(context)가 필요하다.

### 3. 상업가로경관 디자인가이드라인

#### 3.1 디자인 이미지

연구대상인 도심 상업환경 개선구역은 경주에서 전통과 역사의 보존구역과 현대도심의 개발구역 사이에 입지하므로 도시구성 체계에 어떻게 기여하느냐의 문제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시구성체계상의 CONTEXT에 따라 구역별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역별 특성은 내부적으로 동질성과 일관성을 이룰 때 다른 구역과 차별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내재적질서와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 및 요소는 강한 규범적 지침으로 설정하고, 개별건축은 선택가능성을 보장하는 디자인으로 제안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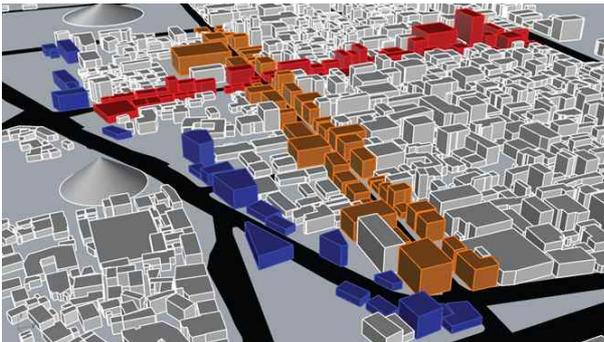


Figure 4. Design Image of Taejong-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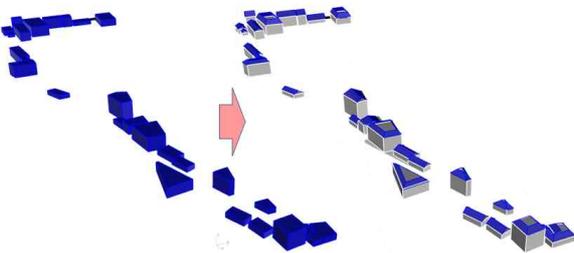


Figure 5. Design Image of C.B.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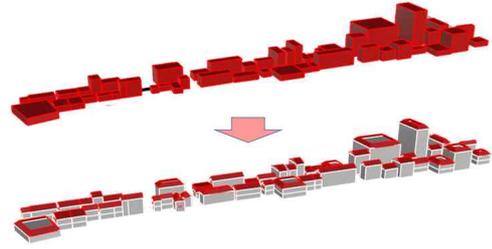


Figure 6. Design Image of Gearim-ro  
(한옥지붕 또는 경사지붕 유도, 코니스 및 간판의 규격화, 1층 건축물을 2층으로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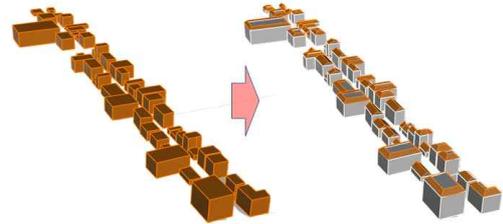


Figure 7. Design Image of Wonhyo-ro  
(경사지붕 유도, 코니스 및 간판의 규격화, 1~2층 건축물을 3층으로 유도)

#### (1) 건축규모

##### a. 스카이라인

도시는 선(線)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도시화는 여러 도시를 격자형 가로와 박스형 건물 등과 같은 기하학적인 선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후 수직의 고층 건물들이 마구 건설되고, 도시가 자연의 풍경마저 가리고 황폐화 되면서 도시의 경관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요구 되었으며, 치솟은 건물들이 하늘과 맞닿으면서 만들어내는 선이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선은 지금까지 대지에서만 그려지는 것과는 달리 개인을 위한, 혹은 자동차와 스피드를 위한 것이 아닌 하늘이란 캔버스에 그리는 새로운 인위적인 선, 즉 스카이라인인 것이며, 그 것은 그 도시를 보는 모든 사람을 위한 풍경이다.

잘 보존된 유럽의 도시들에서 보이는 성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선의 아름다움이나, 가깝게는 9·11테러 이후 확연하게 변해 보이는 뉴욕 맨해튼 풍경의 허전함은 스카이라인이 갖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천년고도 경주는 여러 유적지와 문화재들로 인한 경주시만의 독특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런 부분들과 맞닿아 있는 상업환경 개선지구는 편안함을 주는 경주의 스카이라인과 상반 되는 안정적이지 못한 스카이라인을 가지고 있다.

##### b. 건축물 높이

도시적 맥락을 바라보면서 전통이 중시 되는 곳과 현대적인 모습을 가져야 되는 곳이 서로 맞닿아 있는 도심 상업환경 개선지구는 흐름과 관계(CONTEXT)에 따른 형성이 필요하다.

Table 8. Building Height and Story by Street

거리명	높이 제안
태종로	20M 이하, 2·3층 권장
원효로	20M 이하, 3층 권장
계림로	15M 이하 (태종로~원효로), 2층권장
	20M 이하 (원효로~동성로), 3층 권장
	25M 이하 (동성로~화랑로), 3층 권장



Figure 8. Form Guidelines of One Story Building



Figure 9. Form Guidelines of Two Stories Building



Figure 10. Form Guidelines of Continuous Shops

(2) 색채

경주는 왕릉·돌담·한옥 등 문화재와 자연의 조화를 존중하는 색채를 중심으로 경관색채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주시가 지정한 구역별 대표적인 색상들로 계획하여 조화로운 도심 상업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대상지의 특성이 상업중심지역이기 때문에 혼잡함을 줄이기 위해 원색에 가까운 색상을 선택하여 심플한 이미지의 환경으로 개선한다. 특히, 자극적이고 강한 색상사용을 배제하고 차분하고 고상한 색상을 사용할 수 있게 권장하며, 천년고도, 역사도시로서의 자부심과 그 위엄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색채의 환경을 조성한다.

(3) 지붕

지붕은 경주의 역사문화적 경관과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친환경적 자연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시

간에 따라 서서히 변화하며 빛과 바람에 순응하는 재료의 사용을 유도한다. 특히, 주변 경관에 거스르지 않으면서 도심상업 기능에 맞는 적절한 물성을 가진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a. 태종로

태종로의 위치적 특성은 인근에 왕릉과 같은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한옥형 지붕을 사용하여 주위의 배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유도한다. 특히, 자연과의 융합을 바탕으로 한 기와지붕의 조형적 특징과 자연의 소박성과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포용성 등을 통하여 경주만의 독창적인 지붕스카이라인을 구축하도록 한다.

b. 계림로, 원효로

계림로와 원효로는 경사지붕을 적용함으로써 태종로 변의 전통형식의 지붕들과는 달리 도심의 이미지에 맞는 현대적 느낌의 지붕스카이라인을 재현한다. 경사지붕은 한국 전통형식의 가장 일반적인 지붕형태로서 전통적인 맥락과 현대적인 맥락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형태이다. 옥탑부 미관향상을 위해 가급적 설비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설치 시 차폐시설을 할 것을 권장한다.

계림로 변의 경우, 태종로에 인접하는 지역에는 전통형 지붕을 사용하도록 하고 원효로와 만나는 지점에서 패선의 거리 내부로 갈수록 일반 경사지붕의 비율을 높이도록 한다.

(4) 벽체

3분할 된 벽체는 하층부를 제외한 전 층 동일 재료 및 색상으로 마감하도록 하며, 시야에서 노출되는 벽면은 모든 면을 동일재료로 마감하도록 유도한다.

a. 태종로

태종로 변의 건축물은 무게감 있는 청회색 계열의 재료를 유도하되 화강암·현무암·사암 등 석재나 벽돌시공을 권장한다. 색상은 YR, Y계열로 따뜻하고 편안한 이미지의 경관을 연출한다.

b. 원효로 & 계림로

인접건물과의 높이 차에 따른 시야 노출면은 동일마감으로 유도한다. 벽체 재료는 사암, 스타코, 드라이비트, 금속패널 등을 권장하며, 원효로 변은 황색, 계림로 변은 자색 계열로 유도한다. 특히, 코니스 상 하부의 색상은 하부에는 저명도 저채도로 하고 상부에는 고명도 저채도를 적용한다.

(5) 샵 프론트 및 쇼 윈도우

일반적으로 건물의 높이(H)와 인동간격(D)과의 사이가 D/H=1일 때 시각적인 균형이 존재한다고 하며, D/H<1일 때 상호간에 친밀감이 만들어진다고 한다.<sup>4)</sup>

따라서 7~8m폭 도로의 중앙으로 걸어갈 때 보행자의 시각에서 친밀감을 느끼면서 건축물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높이는 약 3~3.6m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 보행자의 시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샵 프

4) Yoshinobu Ashihara, 건축의 외부공간, 기문당, 1996, pp.52~53

론트의 높이를 제안하면 그림 14와 같다. 그리고 건물과 보도면과의 레벨차가 있으면 화강석, 점판암, 현무암 기단 설치를 유도하고 한다.



Figure 11. Hight Guideline of Shopfront (단위:mm)

### (6) 코니스

돌림띠라고 불리는 코니스는 일반적으로 벽면 상단 근처에 둘러쳐져 추녀 밑 외관을 돋보이게 하는데, 중층건축(重層建築)의 각층마다 적용하여 높은 벽면 전체에 대해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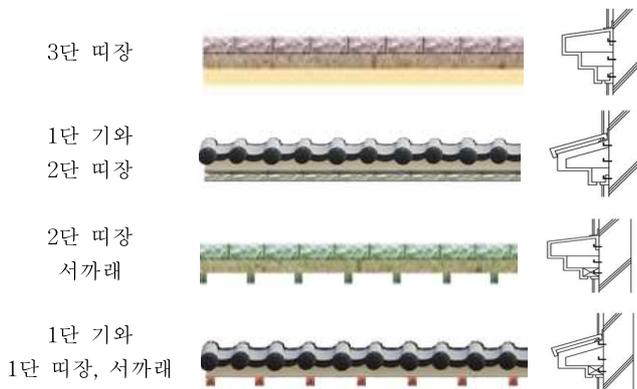


Figure 12. Guidelines of Cornice

원효로와 계림로 변 건축물에 점적으로 분포 되어 있는 서양식 코니스는 단위점포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사용됨으로서 가로 경관의 안정감과 통일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코니스의 디자인 원형은 우리나라 전통지붕의 처마에서 추출하되, 기와나 서까래의 모습을 적용하여 3단 구조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4가지 전통적인 모습을 가진 코니스를 제안한다. 코니스의 시공 시 재료의 선택은 건축물의 외관 재료와 유사한 재료를 적용하며, 형태는 단위 점포들에게 4가지 제안 중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코니스의 설치높이는 3.6m를 기준으로 하며, 코니스의 굵은 300~400mm를 기준으로 하고 돌출 폭은 600mm(건축선 이내 설치)를 기준으로 한다.

### (7) 간판

기존의 사각형 판형간판에서 탈피하여 역사성과 전통성이 표현된 상징적인 아이콘을 활용하여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한다. 특히, 가독성을 위하여 충분한 여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건축물 경관훼손과 보행자의 정보 습득에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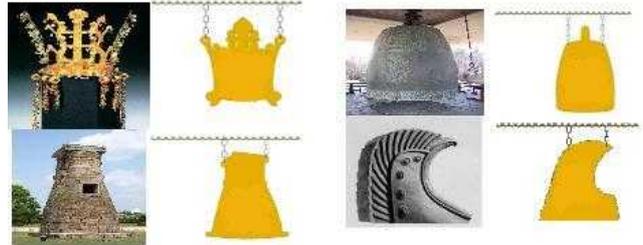


Figure 13. Getreide Sign

### 3.2 상업가로경관 이미지

이상과 같이 가로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상업가로변 건축물들의 가로경관 이미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Figure 14. Current Status 1



Figure 15. After Image 1



Figure 16. Current Status 2



Figure 17. After Image 2



Figure 18. Current Status 3



Figure 19. After Image 3



Figure 20. Current Status 4



Figure 21. After Image 4

#### 4. 결론

본 연구는 고도(古都) 경주의 도심 문화·상업환경 개선 지구 내 태종로 변과 원효로 및 계림로 변 건축물들에 대한 현황조사 및 경관분석을 통하여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역사경관과 어울리는 형태 및 외관으로 바꾸기 위한 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고도(古都) 경주의 도심 문화·상업환경 개선구역은 전통이 중시 되는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맞닿아 있어 현대적인 모습을 가지되 역사경관과의 흐름과 관계(CONTEXT)에 따른 경관형성이 필요하다.

둘째, 대상지의 특성이 상업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혼잡함을 줄이고 심플한 이미지의 환경으로 개선한다. 특히, 왕릉·돌담·한옥 등 문화재와 자연의 조화를 존중하는 색채를 중심으로 경관색채가 구성되도록 하여 천년고도, 역사도시로서의 자부심과 그 위엄이 표현되도록 한다.

셋째, 태종로 처럼 인근에 왕릉과 같은 고분들이 산재해 있는 가로는 한옥형 지붕을 권장하여 주위의 배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유도한다. 반면에 대상지구 내부의 계림로와 원효로의 경우, 일반 경사지붕을 적용하여 태종로 변의 전통형식의 지붕들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유지하면서 도심의 이미지에 맞는 현대적 느낌의 지붕스카이라인을 재현한다.

넷째, 건물벽체는 3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하층부(1층)를 제외한 전 층은 동일 재료 및 색상으로 마감하도록 하며, 하층부는 저채도로 하고 상부는 고명도 저채도를 적용한다.

다섯째, 삼 프론트의 높이는 보행자의 시각적인 측면을 고려하되, 가로의 폭을 고려하여 자연스런 시계를 형성하는 3~3.6m 높이를 제안하며, 건물과 보도면과의 레벨차가 있으면 화강석, 점판암, 현무암 기반설치를 유도한다.

여섯째, 코니스의 설치높이는 3.6m를 기준으로 하며, 디자인 원형은 우리나라 전통지붕의 처마에서 추출하되 기와나 서까래의 모습을 적용하여 3단 구조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일곱째, 간판은 기존의 사각형 판형간판에서 탈피하여 역사성과 전통성이 표현된 상징적인 아이콘을 활용하여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고도(古都) 경주의 상업가로경관은 인근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의 역사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성하며, 특히 현대적 형태에 전통적 요소를 접목하여 역사경관과의 흐름과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고재웅,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석사논문, 2010
2. 국토연구원, 경주고도보존계획, 2011.2
3. 문화재청,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10
4. 유인호 외, 경관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거건축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지 제9권 2호 통권 16호, 2011.11
5. 이동찬 외, 소규모 상업건축물에 나타난 대중적 전통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2권 4호 통권36호, 2003.12
6. 이정형 외, 미국 시애틀시 어반빌리지 전략에 의한 도시설계수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8권 제6호, 2012.6
7. 한국디자인진흥원, 경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경주시, 2012
8. Yoshinobu Ashihara, 건축의 외부공간, 기문당, 1996

접수일자 : 2014. 1. 10

심사완료 : 2014. 2. 20

게재확정 : 2014. 2. 22